



人間에의 尊敬心을 가지고

金 昌 烈 신부

가톨릭 병원 협회 회장
가톨릭 중앙의료원 원장

요즈음 우리는 많은 병원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의
료진과 과학적 施設의 확보, 보다 능률적인 병원
관리方法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실
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본다. 그리고
病院 相互間에 人的, 物的 또는 技術的인 協助의
길을 모색하는 모습도 간간이 눈에 뜨인다. 이와
같은 일은 우리 가톨릭 병원협회가 겨냥하는 하나
의 목표임에 틀림없다.

그러나 우리는 이에 앞서 더 알아주고 중요시해
야 할 價値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. 그것
은 宗教·倫理的 次元의 가치인 것이다. 우리 협
회의 會則에서도 이 點이 第一次의 目標로 밝히 提
示되어 있다.

이 목표의 달성은 <人間에 대한 尊敬心>의 함양
과 밀접히 결부된다. 現代社會에서 진료사업을 이
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 회원 병원들이 서로 협
조해서 育成해 나가야 할 價値中의 價値가 人間에
대한 존경심인 것이다. 그런데 바로 이 高次의 價
値가 점차 評價切下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
實相이며, Grenet가 옳게 지적한대로 병원 운영의
진정하고도 固有한 改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
면이 바로 이 面인 것이다.

비록 오늘의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時代 상황 속
에서 병원 역시 그 存在양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
의 變化는 不可避한 것으로 容納될 수 있을지 모
르나 결국 병원은 그것이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가
야만 할 것이다. 卽 사랑의 사업, 奉仕사업의 모
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. 불란서의 어느 위대한
박애주의자의 말이 생각난다. <사람들을 도와주고
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
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
다>.

現代에 와서는 지난 날 敎會가 말았던 奉仕 및
사랑의 사업의 대부분이 國家의 손에 넘어가 소위
社會 福祉 사업이란 명칭 아래 이루어 지고 있다.
지극히 당연한 推移라 해야 할 것이다. 그러나 우
리 나라 같은 데서는 그것은 여전히 중요한 교회
사업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. 우리는 第2次 바티
칸 공의회가 가르침을 따라 교회와 그 병원의 전
통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곤궁자의 피난처가 되
도록 노력하며, 그 노력이 국민의료의 균점을 실
현하는 方向으로 이끌리도록 서로 協助해 나가야
할 것이다.

1977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 세미나

<主題：醫療保險>

◆ 日 時...1977. 5. 6 (金)

◆ 場 所...상지회관 (서울 돈암동)